

광주도시공사, 상반기 ‘미래도시 골든타임’ 속도전

상무지구 평생주택 재개·AI 집적단지 등 성과 가시화 에너지·미래차·주거복지 추진…특별법 경영 특례 활용

광주도시공사가 2026년 상반기를 ‘광주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주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9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시의회에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제출하고, 올해를 ‘미래 가치를 높이는 속도로 혁신화’하는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평생주택)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달 중 변경협약 체결과 4월 내 공사 재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는 단순한 건설 재개를 넘어,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공익적 가치

경영효율성 강화 등 4대 전략과제 이행에 본격 착수했다.

상반기 행보의 출발점은 주거 안정을 위한 현장 정상화다. 공사는 민간사업자의

경영 문제로 종단됐던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평생주택)’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달 중 변경협약 체결과 4월 내 공사 재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는 단순한 건설 재개를 넘어, 취

실현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꿈꾸는 첨단3지구 인공지능(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다. 공사는

단지 내 각종 인증과 사용승인 절차를 상반기 내 완료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혁신 거점 인프리를 완비하고,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5월 이후에는 미래형 주거 모델과 전문

경영 시스템 도입이 가속화된다. 공사는

남구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누구나

집’ 공급을 위한 리츠(REITs) 설립을 5월 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는 직접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해 약정을 체

결하는 혁신적 사업 방식을 도입. 공공의 신뢰도를 기반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주택 공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본격화된다.

지난해 9월 광주시의회로부터 사업 시행

동의안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는 사업 대

상지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부

처 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대형 프로

젝트도 상반기 중 가시화된다. 공사는 총

20MW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첨단3지구 연료전지 발전사업(1단계)’을 6월 착공 목표로 추진한다. 이는 ‘2045 탄 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도시공사의 중장기 에너지 전환 전략을 설정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시청 등 공공

유休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확충 사

업도 상반기 내 의미 있는 공정률을 확보

할 방침이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장사 행정 서비스

개선도 병행된다. 공사는 영락공원 3단계

획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연장지

2만7000㎡와 봉안당 3700㎡ 설치 공사를

6월 내 준공해, 장사 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 친화적인 장사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2026년 상반기는 최근 벌이온 ‘전남·광주특별시 설자를 위한 특별법’ 등 대외적 기회 요인을 실질적인 경영 성과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특별법에 반영된 각종 특례를 적극 활용해 대규모 복합 개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수치가 아닌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복지와 안전, 미래 산업의 변화를 현장에서 만들어내겠다”며 “상반기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해 호남권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신보,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농협은행·광주은행 등
8개 금융기관과 협약
출연금 5억7500만원
69억1000만원 보증지원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최근 광주 광산구 청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 염규승 광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종민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광산구와 NH농협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서광주새마을금고, 한마음새마을금고, 우산신협, 광주어룡신협, 광주하남신협 등 8개 금융기관이 출연한 총 5억7500만원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이를 통해 총 69억1000만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시행되는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재창업자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보증 한도를 상향해, 자금 수요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최근 광주 광산구청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 염규승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종민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됐다.

아울러 ‘보증드림’ 앱을 활용한 비대면

보증 신청을 적극 안내해 보증 절차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광주신보는 이번 특례보증 시험을 통해

경기 침체와 금융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광산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

정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염규승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

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

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자체 및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보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광산구 소상공인은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중흥그룹, 설 앞두고 협력업체 대금 조기지급

1000억원 규모 현금으로

활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경기가 아恶더라도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흥그룹은 지난해 추석 명절 전에도 공사대금 1100억원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중흥그룹은 매년 우수협력업체를 발굴해 각종 인센티브 및 계약이 행보증보험 면제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금융위, 저신용자 재기지원 카드 2종 출시

후불교통 월 10만원→최대 30만원…내달 23일부터 신청

신용도와 관계 없이 연체가 없다면 체크카드에 월 10만원 한도의 후불교통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신용 개인사업자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발급 가능한 신용카드도 출시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후불교통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를 해소하고 있다가라도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면서 민간 금융사가 제공하는 신용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최초 월 이용한도 10만원이 부여되고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지속해 정상 상황 하면 3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 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의 디자인이나 혜택이 자사의 다른 체크카드와 차별되지 않도록 신경 쓸 예정이다.

오는 3월 23일부터 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3만명이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된다.

개인사업자 헛살론 카드도 오는 2월 20

일 출시된다.

이 상품은 신용하위 50%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라면 서금원 보증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더라도 영업을 계속하려면 원래 구매 등 지출이 계속돼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품인 만큼 월 이용 한도를 기준 개인 대상 헛살론 카드(200만~300만원)보다 많은 월 300만~500만원으로 설정했다.

단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리볼빙·결제대금 연기 등은 이용할 수 없고 할부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된다.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며 9개 카드사가 2000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개인사업자 총 2만5000~3만4000명이 지원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지난해 대통령님의 지시를 받아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다양한 과제를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번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 개인사업자 헛살론이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직거래장터에는 광주시, 전남 9개 시·군과 축산업협동조합(축협)이 참여해

일 출시된다.

이 상품은 신용하위 50% 이하인 개인

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라면 서금원

보증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더라도 영업을 계속하려면 원래 구매

등 지출이 계속돼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품인 만

큼 월 이용 한도를 기준 개인 대상 헛살론

카드(200만~300만원)보다 많은 월 300

만~500만원으로 설정했다.

단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은 이용할 수

없고 할부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된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광주전남 통합을 통

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나아가기 위

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 간 상생과 연

대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체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직거래장터에는 광주시, 전남 9개

시·군과 축산업협동조합(축협)이 참여해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중앙신협 새 이사장에 유근평씨 당선
“지역 발전 ‘든든한 동반자’ 역할 확대”

반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퇴직 후에는 광주중앙신협 이사로 선출되어 활동해 왔다.

현재 유 이사장은 당선 당시 통해 “신협의 투명성과 신뢰를 한층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권리의 보호와 금융 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 행복한 오늘과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실례시오고등학교와 조선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유 이사장은 1988년 광주중앙신협에 입사해 서기로 시작으로 집무, 총무, 제권관리, 사업부, 지점장 등 전 부서와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이후 전무로 퇴직하기까지 34년간 신협에 몸담으며 조직 운영 전